

중국의 만주문학 기억, 그리고 전망*

金昌鎬 강원대학교

1. 서론

중국인에게 만주문학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문학사 연구가 지난 시기에 축적된 문학성과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그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주체의 비평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의식의 형성에는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가 강요되는 사회의 경우에는 개인적 기억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 혹은 문예정책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연구대상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민감한 문제라면 이러한 힘의 작용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현대문학 연구영역에서 일제강점기의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인들은 만주문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큰 마디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과제,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문학과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문학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청산되었고 기억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일제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나름의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만주문학과의 비교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은

타민족의 억압된 지배체제 하에서 두 지역의 민족문학은 어떠한 동일한 문학현상이 나타났는가를 관찰하는데 유익하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의 보편성 확보와 동아시아 근대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문학 측면에서 주체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만주문학’이란 용어에는 매우 복잡한 성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정치적 시각과 지리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정치적 시각에서 ‘만주’라 함은 보통 ‘만주국’을 이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만주국’에는 ‘五族’이 함께 살았다. 따라서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 문학, 일본인 문학 등 ‘오족’의 문학이 모두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의 주체가 중국이므로 여기서는 광복 후 중국에서 진행된 만주국 시기의 중국인 문학으로 한정한다.

지리적 측면에서 ‘만주’는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용어에 지나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복 이전의 문학에 대해서는 ‘동북현대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주문학’이 ‘동북현대문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현대문학의 발전사에 대해 ‘5·4’부터 ‘9·18’ 이전까지를 제1시기로 삼고 있으며, 일

논문접수일 : 200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4월 20일

* 본고는 2004년 12월 4일 만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 수정한 것임.

제 강점기를 제2시기, 그리고 광복 후부터 건국 이전까지를 제3시기로 나누고 있다.²⁾ 제1시기는 문학사적으로 초창기로서 주로 관내에서 전개된 주류문학과와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제3시기는 국공내전 승리 후 시행된 토지개혁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이 있으나 문학사적으로는 커다란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현대문학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시기는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는 제2시기이다. 5·4시기를 거치면서 도약의 발판을 다진 중국현대문학은 30년대에 이르러 질적, 양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북문학 발전에 그대로 옮겨졌다. 또한 동북현대문학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청대 시인 趙翼의 ‘국가의 불행이 작가에게는 행운 國家不幸詩家幸’이라는 말처럼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동북의 문학이 더욱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침략으로 고향이 유린당한 동북의 젊은 작가들은 대중의 저항의식을 고취시키고 망국의 분노를 토로하기 위하여 長春과 하얼빈을 중심으로 문학단체를 결성하고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내외적 문학 발전의 요소로 인해 이 시기 동북문학은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 시기 동북문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東北作家群文學’³⁾과 ‘東北淪陷區文學’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활동한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동북작가군’이란 만주사변 이후 山海關을 넘어 상하이 등 관내에서 활동한 동북출신 작가들을 말하며, ‘동북윤합구 문학’이란 만주 안에서 전개된 문학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만주문학’의 시간적, 공간적, 민족적 범위는 ‘일제 강점기 만주라는 공간에서 전개된 중국문학’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중국에 있어서 일제강점시기 14년간의 만주문학에 대한 평가 작업은 광복 직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혼란과 이데올로기의 강행 등의 이유로 만주문학에 대한 기억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반우파 투쟁’이 전개된 57년 여름 전까지는 만주문학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평가 작업이 있었으나, 그 후 80년대 초까지 문화의 암흑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비판과 탄압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중국에서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개혁개방으로 상대적 해빙기를 맞은 80년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만주문학’에 대한 범위 안에서 광복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의 만주문학 연구사에 대해 광복 직후와 50년 이후, 그리고 80년대 이후 등 세 단계로 나눠서 분석한 후, 과제와 전망으로써 결론에 갈음할 것이다.

II. 만주문학에 대한 기억 양상

1. “결산과 전망”: 광복 직후의 만주문학 연구

중국에서 만주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은 광복 이듬해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잡지가 1945년 12월 長春에서 창간된 『東北文學』이

2) 《東北現代文學史》編寫組, 『東北現代文學史』, 瀋陽出版社, 1989, 2-3쪽 참조.

3) 동북작가군에 관한 연구는 60년대 저명한 문학사가인 王瑤가 『中國新文學史稿』에서 제기한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국현대문학사에서 하나의 문학 유파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4) ‘淪陷區’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윤합구’라고 하기도 하고, 기존의 용어를 사용하여 ‘점령지구’, ‘합락구’라고 이름 하기도 한다. 따라서 ‘東北淪陷區文學’에 대하여 ‘동북 윤합구 문학’이나 ‘동북 합락구 문학’ 등으로 쓰기도 하며, 당시의 이름을 사용하여 ‘만주국 문학’, 혹은 ‘위만주국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 당시 長春에는 만주국의 수도이자 문화 중심지였던 新京 문학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주국 문학에 대한 반성이 가능할 수 있었다. 잡지에는 그 이듬해 1월부터 [結算과 展望]이란 특집란이 신설되었는데 지난 14년간 만주문학에 대한 평가 작업이 각 장르별로 진행하였다.

우선 1월호에는 소설, 산문, 시, 동화, 번역에 관한 회고가 있었다. 姚遠은 「동북 14년 이래의 소설과 소설가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에서 이 시기에 창작된 소설에 대해 신문, 잡지, 단행본으로 정리하였다. 만주국에서 발행된 신문 가운데 문예전문난이 있던 신문에는 長春에서 발행된 『大同報』, 遼寧의 『盛京時報』, 하얼빈의 『大北新報』, 『濱江日報』, 大連의 『泰東日報』, 『滿洲報』, 錦州的 『遼西晨報』와 吉林의 『吉林日報』 등이 있는데, 그중 『大同報』, 『盛京時報』, 『大北新報』, 『滿洲報』 등이 유명하며, 특히 『大同報』, 『大北新報』에 신문학 작품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⁵⁾

그는 이어서 만주국에서 발행된 문예잡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만주국에서 발행된 문예잡지로는 長春에서 발간된 순수 문예잡지 『明明』, 遼寧에서 발간된 부정기 동인지 『文選』이 있고, 정간된 『明明』을 이어서 발행된 동인지 『藝文志』가 있다. 한편 『新青年』은 정기 종합잡지로서 순문예의 성격은 적지만 대중적 환영을 받은 잡지였으며, 『作風』은 외국의 명작을 주로 번역 소개한 잡지로 단지 1기만 발행되고 곧 폐간된 단명한 잡지였다. 만주의 작가들은 이러한 순문예지나 종합잡지를 통하여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37년 본격적인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문예통치를 강화하였고, 1941년 3월 『藝文指導要綱』을 반포한 이후에는 기관지인 『康德新聞』만을 남기고 모두 폐간하여 동북문학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⁶⁾ 이러한 문학지형의 변화는 한국문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姚遠이 제시한 자료는 소설 작품집이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만주국에서 출판된 소설 집으로는 古丁의 『平沙』, 『竹林』, 『平沙』, 『新生』, 小松의 『蝙蝠』, 『無花的薔薇』, 『人和人們』, 『北歸』, 『野葡萄』, 『苦瓜集』, 疑遲의 『風雪集』, 『花月集』, 『天雲集』, 『同心結』, 爵青의 『歐陽家的人們』, 『歸鄉』, 金音의 『牧場』, 『教群』, 石軍의 『沃土』, 『新部落』, 『邊城集』, 山丁의 『山風』, 『鄉愁』, 『綠色的谷』, 韋長明的 『荀』, 方季良의 『燈籠』, 梅娘의 『小姐集』, 『第二代』, 袁犀의 『泥沼』, 秋螢의 『去故集』, 『河流的底層』, 『小工車』, 克大的 『燕』, 任情的 『碗』, 戈禾의 『大凌河』, 也麗의 『花塚』, 吳瑛의 『兩極』, 姜靈非의 『新土地』, 柯炬의 『鄉懷』 등 40권이다.⁷⁾

그는 이어 秋螢, 小松, 古丁 등 주요 작가와 『北歸』, 『녹색의 계곡 綠色的谷』 등 중요 작품에 대해 각각 자세히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山丁의 『녹색의 계곡』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한 比較成功的”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 서술에 치우쳤던 과거의 관습을 과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의식을 심은”⁸⁾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처럼 항상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山丁과 그의 대표작 『녹색의 계곡 綠色的谷』은

5) 姚遠,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88쪽 참조.

6) 姚遠,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89쪽 참조.

7) 姚遠,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90-691쪽. 광복 후 다시 출판된 작품집으로는 山丁과 古丁 등 대표적 작품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거나, 혹은 출판사의 사정에 의한 까닭도 있지만, 현존하는 작품 중에는 내용에 따라 공개불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있다.

8) 姚遠,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94쪽.

광복 직후와 80년대 이후에 들어서 만주 향토문학의 진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두 시기의 중간 단계인 문화대혁명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는 한간 문학으로 비판을 받는 등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기억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기억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문학에 대한 평가를 조명하는 또 하나의 개별적 방법이 될 것이다.

만주에서 생산된 산문에 대한 평가는 林里이 발표한 「동북 산문 14년의 수확 東北散文十四年的收穫」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대표적 산문집과 산문 작가에 대해서 평가하였는데, 그가 소개한 산문집을 보면 也麗의 『黃花集』, 楊絮의 『落英集』, 但娣의 『安獲與馬華』, 幸嘉의 『草梗集』, 季風의 『雜感之感』, 그리고 劉漢의 『諸相集』 등 6권이다. 특히 也麗의 작품집 『黃花集』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동북산문계의 유일한 순수 산문집이나 출판 즉시 위만의 검열기관에 의해 압수당했기 때문에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가 본인조차 얻을 수 없었으며, 단지 잡지에서 유출된 몇 권만을 서로 돌려가며 몰래 읽을 수밖에 없었다.⁹⁾

林里의 이와 같은 기억은 당시 만주국에서 일제의 사상통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李文湘은 「과거 14년의 시단 過去十四年的詩壇」에서 “동북 시의 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위 대동아 전쟁을 분수령으로 이전의 시에는 비판과 반항의 역량이 다분히 담겨져 있으나,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단지 숨겨진 상징으로 밖에 승화될 수밖에 없었으며”¹⁰⁾ 전

쟁 후에는 “참된 문예가 점점 소멸되었다 眞的文藝漸漸消隱”¹¹⁾ 고 회고하고 있다.

그가 “비교적 순박하면서도 진솔 比較的淳眞”하다고 평가한 전쟁 이전의 작품집으로는 成弦의 『靑色詩抄』, 百靈의 『未明集』, 小松의 『木筏』, 金音의 『塞外夢』, 山丁의 『季季草』, 冷歌의 『船廠』이 있다. 아울러 그는 이들 작품집에 대해 간략한 총평을 곁들였는데, 예를 들어 成弦의 『靑色詩抄』의 경우는 내용은 청년의 애정이 가득 차 있으나 시어가 가벼워서 막상 읽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평가하였고, 百靈의 『未明集』은 담백한 산문시로서 일본의 시조인 俳句의 맛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小松의 『木筏』은 아름다운 감정이 넘쳐흐르나 『靑春詩抄』보다 더 산문화가 되었으며, 『塞外夢』은 교과서적이고 철리적인 경향이 강한 교훈성 짙은 시집이고, 『季季草』은 소설적 수법으로 열정이 가득 차 있으며, 『船廠』은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창작하였기 때문에 “回憶派”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²⁾ 이어서 그는 전후의 작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의 작품집으로는 外文의 『長吟集』과 韋長明의 『七月』이 있으나, 이들 시집은 기존의 새로운 시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 이전에 발표한 작품들을 엮어서 출판한 작품집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다음 달에 발간된 제3기에서 孟語는 「윤합기의 동북 희극 淪陷期的東北戲劇」을 통하여 각 도시별로 활동한 극단을 중심으로 만주국의 희극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일제가 동북을 점령한 후 長春을 시작으로 착취하였기 때문에 연극 활동도 당연히 長春에서 가장 먼저 성립되었는데, 대표적인 극단이 일본인에 의해 1934년

9) 林里, 「東北散文十四年的收穫」,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06쪽.

10) 李文湘, 「過去十四年的詩壇」,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79쪽.

11) 李文湘, 「過去十四年的詩壇」,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79쪽.

12) 李文湘, 「過去十四年的詩壇」,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80쪽.

13) 李文湘, 「過去十四年的詩壇」,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80쪽.

에 설립된 大同劇團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 밖에 長春에서 활동한 극단으로 1939년 중국 작가인 山丁, 吳郎, 孟語 등이 창단한 文藝話劇團이 있으며, 瀋陽에서 조직된 극단으로는 역시 일제의 선전 조직으로 활동한 協和劇團과 國際劇團 등이 있었으나, 만주국의 희극은 주로 대중의 노예화와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비평하고 있다.¹⁴⁾

만주문학 발전사를 종합할 때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문학가의 활동이 왕성했다는 점이다. 1946년 3월에 발간된 『東北文學』 제 1권 제4기에 발표된 『東北女性文學十四年史』에서 林里는 이와 같은 동북 여성문학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 동북 여성문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14년간의 수확에 대해서 목록별로 정리하고 있다. 그가 열거한 단행본으로는 1933년에 출판된 蕭紅과 蕭軍의 합작 소설집인 『跋涉』, 敏子的 소설산문집인 『小姐集』(1935), 吳瑛의 소설집 『兩極』, 梅娘의 소설집 『第二代』(1940), 楊絮의 종합 작품집 『落英集』(1943), 但娣의 『安獲和馬華』(1943), 楊絮의 산문 작품집 『我的日記』(1944), 그리고 광복 직전에 출판된 朱媞의 소설집 『櫻花集』 등 8권이 있다. 그는 이어서 각 문예 잡지에 등재된 작품들에 대해서 北平에서 출판된 『女性雜誌』에 마련된 동북 여작가 특집호에 실린 吳瑛의 소설 1편을 비롯하여 총 4편, 『新潮』 제 1권 7기에 마련된 여성 단편 창작선의 朱娣의 소설 『遠天的流星』, 林潛의 소설 『珍惜』 등 2편, 『青年文化』 제1권 3기의 여성문학 특집에 실린 但娣의 소설 『戒』, 左蒂의 소설 『女難』, 吳瑛의 소설 『鳴』, 藍苓의 시 『科沁草原的牧者』, 그리고 『新滿洲』 제 6권 10호와 11호에 발표된 冰壺의 산문 『父親的誕日』과 藍苓의 소설 『日出』의 4편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¹⁵⁾ 마지막으로 논자는 동북 여류작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각자신의 생활모습을 벗어버려야 하고, 둘째, 강인하고 건전한 의식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¹⁶⁾

이처럼 중국에서의 일제하 만주문학에 대한 평가는 광복 이듬해부터 시작되어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하나 중국에서 진행된 광복 직후 만주문학에 대한 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문학 장르에 대한 개별적 평가뿐만 아니라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스스로의 문학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주의 대표적 여류 작가인 但娣는 “자신의 행적과 작품이 ‘偽滿’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작품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¹⁷⁾ 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자신이 만주국에서 겪은 경험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들이 대거 출판되는 등 비평과 창작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광복직후의 성과는 이후 80년대 이전까지 약 30년간 중국의 경직되고 편파적인 문화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였고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걸었다.

2. 문화의 암흑기 : 반우파 투쟁에서 문화대혁명까지의 만주문학 연구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중국의 문예계는 집권파인 극좌파와 이에 도전하는 중도좌파 내지는 우파 사이에 전개된 끊임없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1957년 봄, 그동

14) 孟語, 「淪陷期的東北戲劇」,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47쪽.

15) 林里, 『東北女性文學十四年史』,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12쪽.

16) 林里, 『東北女性文學十四年史』,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23쪽.

17) 但娣, 「關於『奴化思想』及『偽滿作家』」, 『東北文學』 第一卷 第二期, 中華民國三十五年一月一日, 6쪽.

안 기반을 공고히 다진 공산당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사상적, 문화적 포용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에 대한 비판도 권유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과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조직적으로 비판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당국은 채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들에 대해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 기관지인 <人民日報>에는 공산당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부르조아 우파들을 공격하라는 사실이 게재되었고, 그 후 1년여에 걸쳐 이른바 ‘반우파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의 전환은 문학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장기간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던 동북지방의 경우 작가의 수와 작품의 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친일적 경향이 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청산작업은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1942년 이후 연안에서 문예이론을 연구하고 광복 후에는 동북문예공작자협회 비서장 등을 역임한 蔡天心은 이 시기에 출판된 그의 대표적 평론집 『文藝論集』¹⁸⁾에서 「반동적 한간 문예사상을 철저히 청산하자」¹⁹⁾라는 문장을 통하여 친일청산의 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동북이 해방된 지 12년 동안 정치적인 적들은 굴복시켰으나, 문화방면의 한간과 그들이 14년간 지은 죄악행위, 그리고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도와 우리 민족에게 가한 학살은 한번도 철저히 청산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해방 후 혁명대로 들어간 후 장시간 반동사상을 가지고 반인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충실한 것이 “약간의 공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

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품이 “진보적”이며, “회색한” 것이라는 여기고 있다.²⁰⁾

그는 문화 한간의 대표적 인물로 古丁과 山丁을 지목하였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古丁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먼저 만주국 국무원에서 통계관, 사무관을 역임하였고, 친일 기관인 『滿日文化協會』의 찬조를 받아 출판된 『藝文志』의 책임자였으며, 만주작가를 대표하여 3회에 걸쳐 ‘대동아문학자 대회’에 참석한 古丁이야말로 한간 문인 중 가장 우두머리라고 비판하였다. 古丁을 표적으로 삼아 비판한 그는 이어 한간문인의 제2인자로 山丁을 지목하였다. 山丁의 경우 이미 광복 직후 진행된 만주소설에 대한 결산에서 “비교적 성공한” 작가라는 1차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학을 창작구호로 한 한간 문인 以“鄉土文學”爲創作口號的漢奸文人”이라고 고깔을 씌우면서, 그의 대표작 『녹색의 계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이다.

특히 악독한 것은 山丁은 자신의 이 소설에서 왜곡시켜 묘사한 생활과 인물을 이용하여 일본이 ‘九·一八’사변의 발동하고 점령한 후 동북인민들을 奴役시키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으며, 일본 침략의 합리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일본의 동북 통치를 공고히 해주고 있다.²¹⁾

이와 같은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광복 직후에 진행된 결산과는 상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주체가 위치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광복직후 만주에서 재생한 만주문학에 대한 기억들은 기억의 시간과 위치가 사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보

18)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19) 본 논문은 1957년 11월 6일에 완고한 것임.

20)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101쪽.

21)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116쪽.

다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蔡天心의 경우는 그가 활동한 공간이 연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중국의 사회사상이 극좌적인 성향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蔡天心은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으로 찾아가 공산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정신이 투철한 작가로 그의 눈에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윤합구에서 활동한 작가들은 그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항일 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 경력과 애매한 문학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우파내지는 친일적 성향의 작가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성립되기까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사회에 중심 사상이 되었던 ‘반우파 투쟁’ 노선도 커다란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윤합구와 마찬가지로 1942년 모택동의 ‘연안문예 강화’ 이후 공산당 진영에 속한 작가들은 그가 당원이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 사이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통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편향된 기억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작업은 획일화된 편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 진행된 일련의 친일청산 작업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3. 다시 쓰는 문학사 : 80년대 이후의 만주문학 연구

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단지 경제상의 몫만은 아니었다. 그간 30여 년간, 아니 어쩌면 40년 이상 중국의 지식인들이 갈망하던 신선

한 공기는 제한적이거나 허락되어 중국 문학계에 생기를 불어넣는 촉진제가 되었다.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80년대 초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첫 신호탄은 1983년에 張毓茂가 발표한 「현대문학 연구의 공백을 메워야 함 — 윤합시기 동북문학을 예로 삼아」라는 논문이다.²²⁾ 그는 이 논문에서 동북 윤합시기 문학의 하나의 독립된 ‘만주문학’으로 보지 않고, 5.4시부터 이어온 동북신문학의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북 좌익혁명 문예의 역사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속된 편견과 선입관을 벗어나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주문학을 접근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만주문학에 대해 ‘한간문학’이라는 고정관념의 이탈은 李春燕의 「윤합시기 동북문학 연구에 관한 생각 關於淪陷時期東北文學研究的思考」이라는 논문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먼저 윤합구 문학을 편견이 아닌 ‘실사구시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본질과 주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 윤합시기 문학은 애국 항일 문학이며, 반전문학이다 東北淪陷時期的文學是愛國抗日的文學, 是反抗侵略的文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과거의 ‘동북윤합시기 문학연구 중의 좌경사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²³⁾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가 길림성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장이라는 위치로 볼 때 만주문학을 포함한 중국 윤합구 문학 연구의 흐름이 이미 새로운 단계로 방향전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먼저 문학사가인 孫中田은 만주문학을 중국현대문학사 서술과의 총체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문학과 역사의 해석에 현

22) 張毓茂, 「要填補現代文學研究中的空白 — 以淪陷時期的東北文學爲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3年, 第4期.

23) 李春燕, 「關於淪陷時期東北文學研究的思考」, 『社會科學戰線』1987年 第4期.

존하고 있는 안개를 걷어 버리고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며', 운합구 문학을 '심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전체 중국현대문학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만일 동북이나 대만을 포함한 운합구 문학연구를 소홀히 하여 문학사의 틀 안에 넣지 않는다면, 이는 문학사의 완성도에 있어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가 사학으로써 추구해야 할 객관과 공정, 과학적 품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⁴⁾

80년대는 만주문학을 재조명한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료집은 1980년부터 하얼빈과瀋陽에서 간행된 『東北現代文學史料』, 『東北文學研究叢刊』, 『東北文學研究史料』 등이 있다. 이들 자료집은 비록 부정기적으로 출간되었으나 만주문학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만주문단에서 활약했던 山丁, 秋螢 등 작가들이 직접 투고한 글들과 함께, 그간 잘 발굴되지 않았던 작품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작가론, 작품론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집은 1987년 이후 정간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사회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북경의 봄'에서 '천안문 사태'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운합구 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전의 열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말에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만주문학 연구사에 한 획을 그은 『東北現代文學史』가 출판되었다. 여기서는 동북현대문학 전반에 대해서 5.4신문학 시기와 운합시기 동북문학, 동북작가군, 그리고 국공내전 시기 등으로 정리하였는데, 80년대의 시각이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문학사로서의 체계나 내용의 다양성은 오늘날에도 좋은 전범이 되고 있다.

만주문학에 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1991년에 출판된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²⁵⁾은 주로 문학사조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집이며, 비슷한 시기 출판된 『東北淪陷時期文學史論』²⁶⁾은 문학사조, 유파, 작가, 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만주문학에 대해서 총체적 입장에서 다룬 문집이다. 1996년에 출판된 張毓茂 主編의 『東北現代文學史論』은 운합시기 만주문학을 포함하여 동북현대문학 전반에 걸쳐 소설, 산문, 시가, 희곡, 문학이론 및 운동 등 각종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중국의 만주문학 연구사에서 90년대의 또 다른 성과는 비교문학적 시각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색깔을 지닌다. 하나는 중국현대문학과의 비교이다. 이러한 연구는 먼저 1991년 9월 長春에서 개최된 동북운합시기문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逢增玉의 『동북 운합기 향토문학과 중국현대문학사의 향토문학 비교』²⁷⁾에서 시도되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하여 만주 향토문학을 중국현대문학 전체로서의 향토문학과 비교함으로써 중국현대문학 중의 한 부분인 향토문학의 특징과 대별되는 특수한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일제 강점기 만주 향토문학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9년에 발표된 李春燕의 『동북운합시기 문학과 '五·四' 신문학의 비교』²⁸⁾는 지역문학인 만주문학을 중국 현대문학사 중에서 초기 문학발전 시기에 해당되는 五·四시기에 나타난 문학특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만주문학이 山海關 이남의 이른바 중원 문단과 분리되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전체 중국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교연구의 또 다른 시도는 일제 침략을 겪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학과와의 비교를

24) 孫中田, 『歷史的解讀與審美趣向』,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 40쪽.

25) 馮爲群、李春燕,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吉林大學出版社, 1991.

26) 申殿和、黃萬華, 『東北淪陷時期文學史論』, 北方文藝出版社, 1991.

27) 逢增玉, 『東北淪陷時期鄉土文學與中國現代文學史上鄉土文學之比較』,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瀋陽出版社, 1992.

28) 李春燕, 『東北淪陷時期文學與“五四”新文學之比較』, 『社會科學戰線』, 1999年 第6期.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30년대 이후 일제의 중국 합락 지역은 크게 만주국이 위치한 동북지역,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화중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문학은 일제의 합락기간과 통치 방법, 그리고 각 지역이 지니고 있던 고유한 지역 문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高翔, 薛勤, 劉瑞弘은 「동북, 화북 운함구 문학 비교연구」²⁹⁾와 「동북, 화북 운함구 문학 논쟁 및 사단형태 비교」에서 역사 배경이 유사한 두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의 각 분야를 비교 고찰하여 비록 유사한 역사 환경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역사 현실의 차이와 각 지역의 문학 전통 등의 다름으로 인해 두 지역의 문학 또한 서로 상이한 문학 특징이 나타났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같은 문학 환경 속에 있는 타민족과의 비교도 이루어졌다. 김장선의 박사학위 논문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가 바로 그것인데,³⁰⁾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본 논문은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된 재만 문학과는 달리 ‘위만주국’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문학 정책 하에서 진행된 두 민족의 문학을 발생과정, 소설, 시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간 비교연구는 아직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학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연구는 자료의 발굴과 축적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1996년에 출판된 『東北現代文學大系』는 만주문학 연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성과라도 할 수 있다. 이 전집은 내용면에서 볼 때 편집자의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지만 1919년부터 1949년까지의 동북문학에 대해서 평론,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산문, 시가, 희

극, 자료색인 등으로 구분하여 총 8권 14집으로 구성된 자료집으로 지역문학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공헌도에 있어서도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총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中國淪陷區文學大系』가 출판되었다. 이 전집은 北京大學 중문과의 錢理群에 의해 편집되었는데 이는 중국문학계에서 차지하는 편집자의 비중이나 전집 규모 면에서 볼 때 운함구 문학이 이미 중국현대문학의 주류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III. 결론 : 과제와 전망

중국에서 일제 강점기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중국현대문학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오랫동안 주류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동북이라는 지역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북은 산해관 이남 지역인 관내에 비해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척박하였다. 또한 최근 탈식민주의 담론과 새로운 소재 찾기에 힘입어 나름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문학 연구자들은 주변문학보다는 주류문학을, 지역문단보다는 중앙문단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운함구 문학이란 의례히 ‘친일문학일 것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최근 관방학자들이 ‘운함구에도 항일 문학이 있다’라는 깃발을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는 자료문제인데, 문화대혁명 시기를 전후해서 많은 작가들이 탄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9) 高翔, 薛勤, 劉瑞弘, 「東北、華北淪陷區文學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2000年 第3期.

30) 김장선, 『위만주국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2004.

31) 중국에서 ‘大系’의 출판은 정부와의 관계, 자료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국현대문학 연구 영역 가운데 ‘운함구 문학’을 제외한 ‘해방구 문학’과 ‘국통구 문학’의 ‘대계’ 출판은 80년대에 이루어졌다.

작품들도 상당부분 소실되었고, 또한 남아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자료의 공개 및 발굴이 어렵다. 최근 『東北現代文學大系』나 『中國淪陷區文學大系』 등 방대한 자료가 집대성되었으나, 여기에는 친일문학작품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라고 하기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물론 중국현대문학이 그러하듯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도 중국 사회의 변동에 따라 많은 부침 속에 진행되어왔다. 문제는 앞으로의 생명력이다. 90년대 후반이후 중국에서의 만주문학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연구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시 말해서 80년대에는 이른바 ‘만주작가’들이 생존하였고, 문화대혁명으로 지하에 있었던 그들의 작품들이 재조명되었던 시기인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서들이 출판되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청년 학자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만주문학 연구는 일종의 고착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만주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만주문학 연구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문예정책에 따라 한간문학, 아니면 항일문학으로 매우 편향되고 단색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李春燕 교수가 주장했듯이 문학연구는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스런 연구 환경의 보장과 올바른 비판시각, 그리고 활발한 자료 발굴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세기 전반기에는 만주지역 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반도 등 동아시아

의 수많은 지역이 일제의 강점 아래에서 신음하였으며 이러한 공통의 역사 환경은 유사한 문학 특징이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적 시각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한국문학과의 비교 가능성이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만나는 곳이 요동이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의 현대문학 관계를 규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한중간의 고대문학 이후에는 양계초의 정치소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희미하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의 비교문학은 주로 수평적 위치에서 진행되는 주제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근대문학이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시기 중국문학과의 비교는 만주문학과 이루어질 때 그 可比性이 높을 것이다.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한반도와 만주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배경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동질성은 ‘기억’의 유사성을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지역에서 발생한 문학 형태의 유사성이나 기억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시기 한국과 만주 문학의 관련양상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근대문학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근대화가 그러하듯이 문학 또한 일제강점과 무관하지 않다. 만주문학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만주지역은 근대이전까지는 봉금령 등의 이유로 대지는 비옥해졌지만 문화적으로는 낙후된 곳이었다. 만주에서 문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만주사변 이후부터이다.

둘째는 떠난 자들의 문학이다. 이른바 ‘이산(Diaspora)문학’이라 이름하고 있는 이 문학 현상은 한국과 만주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수많은 한국의 작가들이 반도를

떠나서 대륙으로 향하였듯이 만주의 경우도 만주 사변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동북 출신의 작가들은 산해관을 넘어 칭다오, 상하이 등지로 망명하여 중국현대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동북작가군’을 형성하였다.

셋째는 남아있는 작가들과의 비교다. 이것은 다시 돌로 나눌 수 있는데,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이 그것이다. 항일문학의 경우는 직접적 저항보다는 은유나 풍자, 어두운 시대상의 묘사 등 주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두 지역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광복 후 50여 년간 진행한 만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들 항일문학이 주종을 이루었다. 문제는 친일문학인데, 한국의 경우는 공개롭게도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된 친일청산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민족단합이라는 이유로 친일문학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쟁점은 한국과 만주문학 관계를 재조명하는 영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이라는 동일한 정치상황과 문학 환경을 가진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식민지 문학의 동아시아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廣西教育出版社, 2002.
-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 · 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1996.
-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 東北現代文學史編寫組, 『東北現代文學史』, 瀋陽出版社, 1989.
- 馮爲群、李春燕,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吉林大學出版社, 1991.
- 申殿和, 黃萬華, 『東北淪陷時期文學史論』, 北

方文藝出版社, 1991.

- 馮爲群、李春燕 等編,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瀋陽出版社, 1992.
- 孫中田, 『歷史的解讀與審美趣向』,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
- 張毓茂, 「要填補現代文學研究中的空白 — 以淪陷時期的東北文學爲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3年, 第4期.
- 李春燕, 「東北淪陷時期文學與“五四”新文學之比較」, 『社會科學戰線』, 1999年 第6期.
- 李春燕, 「關於淪陷時期東北文學研究的思考」, 『瀋陽師範學院學報』, 2000年 第11期.
- 高翔、薛勤、劉瑞弘, 「東北、華北淪陷區文學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2000年 第3期.
- 高翔、薛勤、劉瑞弘, 「迂曲中的求索 — 東北、華北淪陷區文學論爭及社團形態比較」, 『社會科學戰線』, 2000年 第3期.
- 金昌鎬, 「淪陷時期中國東北與韓國文學比較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 論文, 2003.
- 『東北文學』1945.1-1946.3期.
- 김장선, 「위만주국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2004.

中 文 提 要

光復后中國的滿洲文學回顧與展望

金昌鎬(江原大學校)

文學研究反映一定社會史潮, 自光復至今在中國進行的滿洲文學(東北淪陷時期文學)的研究史, 證明這件事實滿洲文學研究與中國現代史的歷程浮沉而來, 我們可以分爲如下三個時期: 第一時期是光復之后到反右派鬥爭之前, 這一段時期, 滿洲文學各文體和作家作品整體性的研究体现出歷史性和綜合性的意義. 不過50年代中旬開始一直到80年代初,

由于時代的动荡，这项研究未能健康地展开，就被戴着“汉奸文學”的高帽子，成爲中國現代文學史的禁區，这给滿洲文學的研究帶來了极大的损失。进入80年代，改革开放政策使滿洲文學的研究出现了生机，一些颇具价值的研究成果的出現，表明了滿洲文學史的研究掙脫“左”的枷鎖。到90年代初開始梳理而編纂具有整體性的研究書和像「東北現代文學大系」似的資料集。这种书的问世标志着滿洲文學的研究已到新的高峰。可是由于青年學者的消极参与、研究視角和资料的界限，90年代末以后得不到良好的成果。所以爲了克服这种危机，研究者一定坚持實事求是的态度，探索新的思路，不斷地发掘隱藏着的资料，去开拓更廣闊的學術前景。

주제어 : 민주문학, 동북윤합구문학, 연구사, 한민문학,
저항문학